

李대통령 “전폭 지원”...地選 전 행정통합 가시화

李대통령·광주·전남 정치권 간담회

재정·반도체·공공기관 이전 등 약속
“무리해서라도 새로운 전기 만들 것”
李대통령, 시·도의회의 의결 무결 실어
지역 국회의원들도 “통합” 한목소리
정청래 “광주·전남 통합법 신속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3·5·7면

특히 광주·전남도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과 통합 단체장 선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투표 대신 광역의회의 의결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도 주민투표보다 광역의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행정 통합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李 “이번 기회에 통합 성사시켜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광주·전남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특단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행정통합 성공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조성 검토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책을 언급하며 행정 통합이 정부 지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재정 분야와 관련, 단순 통합 시 재정자립도가 33.9%에서 27.3%로, 재정자주도가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립에 대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5·16일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도 광주·전남 집중 배치

양 시·도지사는 산업 분야에서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2038년 이후 추진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글로벌

별 기업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설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기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나누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 권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권한을 모두 넘기겠다”며 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절차에 대해선 “시·도의회의 의결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며 “다만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에 그동안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남는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기업 유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양 시·도 청사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과 민간·군 통합공학 무안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姜시장·金지사 “대통합 공동발표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청와대 오찬 직후인 이날 오후 5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시·도민 보고회를 열어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 협력기로 했다.

또 기존 광주시·전남도 청사는 존치하되, 통합 이후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민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협력기로 했다.

◇민주, 특위 구성·특별법 제정 속도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거제시의 한 굴 양식장에서 수산업 현장체험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전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이제 해야 할 것 같다”며 “특위에 관련 국회 상임위 간사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당선 직후 출범시킨 당내 호남특위를 언급하며 “충남·대전 통합특위는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호남특위가 따로 있어 (통합에) 더 속도가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수·변은진·양시원 기자

與 신임 원내대표 3선 한병도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운·문정복 선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사진)이 11일 선출됐다. 그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3선)과 치른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1차 투표에서는 진성준·박정 의원(이상 3선)이 탈락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의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현금 수수 의혹 여파에 따른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한 대립 속 개혁 입법·민생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원광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내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재선)·이성운(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일단 비당권파(강득구)보다 당권파(이성운·문정복)가 더 많이 승리하면서 ‘정청래 체제’의 동력이 유지됐다는 평가다.

투표 결과 강득구(30.74%)·이성운(24.72%)·문정복(23.95%) 최고위원이 1·3위를 기록했다. 이견태 의원은 20.59%의 합계 득표율로 탈락했다.

이번 보선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후임을 뽑기 위해 치러졌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최고위원들의 잔여 임기인 올해 8월까지다. /김진수 기자

나주서 또 고병원성 AI...전남 7번째 발생

전남도는 11일 “지난 8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나주 다시면의 육용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9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육용오리 2만7천여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월 영암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나주 5건, 영암 2건 등 올해 동절기 들어 현재까지 총 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추가 확산 차단을 위

해 발생 농장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하고 청소·소독과 함께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Today	
GGM “일자리 늘려 청년 유출 막겠다”	12면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	16면
김도영 “도루는 포기 못해...뒤풀겠다”	16면

松川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양승환 대표이사

松川 (주)송천

본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